

청소년의 스트레스인지가 자살의도에 미치는 영향: 신체활동, 문제음주, 우울인지를 매개로

김형태*, 윤미은**, 천성수†

* 삼육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 한국알코올문제연구소

†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Cognitive Stress on Their Suicidal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Physical Activity, Problem Drinking, Cognitive Depression

Hyung Tae Kim*, Mi Eun Yun**, Sung Soo Chun†

*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ahmy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 Sahmyook University Institute on Alcohol Problem

†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Sahmyoo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how adolescents' cognitive stress relates to suicidal thought, thereby offering basic data about social and institutional ways to reduce adolescent suicide. **Methods:** In this study, data from an online survey on adolescents' health conducted by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2013, 9th) was used after altering it to fit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data was analysed using the complex sampling method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Results:** Whilst adolescents' cognitive stress had positive effects on suicidal thought, problem drinking and cognitive depression, it had a negative effect on physical activit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rom cognitive stress, problem drinking, cognitive depression, physical activity influenced suicidal thought. Problem drinking on the other hand had an influence on cognitive depressio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uture intervention programs for prevention of adolescents' suicidal thought should also address problem drinking, cognitive depression, and cognitive stress.

Key words: Suicidal Thought, Cognitive Stress, Problem Drinking, Cognitive Depression, Physical Activity

I. 서론

자살은 2012년 국민 전체자료를 분석하였을 때 2011년에 비하여 11.4%가 줄어들었으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이은 네 번째 사망원인이다. 그러나 10대, 20대에서는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Statistics Korea, 2012). 청소년은 하루에 한 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어 청소년의 자살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이르는 연속적인 개념을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Harwood & Jacoby, 2000). 즉 자살은 자살생각에서 출발해서 자살을 계획, 준비하고 시도하여 완전한 자살에 도달하는 연속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자살이 성인의 자살에 비해 충동적으로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

Corresponding author : sung soo chun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Sahmyook University, Hwarangro-815 nowon-gu Seoul 139-800, Korea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Tel: +82-2-3399-1641 Fax: +82-2-3399-1640 E-mail: chss97@syu.ac.kr

▪ 투고일: 2014.07.29

▪ 수정일: 2014.09.11

▪ 게재확정일: 2014.09.15

속성의 사고에서 행동한다(Barrios et al., 2000). 이는 자살생각이 자살계획과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지표가 되고(Choi, 2012; Dubow et al, 1989; Kim & Jeon, 2012), 자살생각에 대한 이해는 자살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자살은 자살계획에서 실행까지의 기간이 짧으며(Hyun et al., 2012), 주변인과 가족들에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자살위험을 전파시키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Moon, 2011; Nam, 2013), 생존하였다라도 성장과정이나 성인이 된 후에도 다시 자살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Oh & Lee, 2010)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개인적 원인, 가족적 원인, 학교적 원인과 같은 다차원적인 원인에 의해 유발된다(Kim, 2008; Nam, 2013; Oh & Lee, 2010; Ye, 2012). 그중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들 수 있다. Wang et al (2007)은 자살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들었는데,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배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우울은 자살을 이끄는 가장 위험한 단일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며(Moscicki, 1997), 우울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의 2%-15%가 자살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2008).

청소년기는 자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감정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Erikson, 1982). 이러한 현실도피 생각은 약물, 음주, 흡연의 경험을 높이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다(Oh & Lee, 2010). 대학생의 우울, 취업스트레스에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제음주가 조절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문제음주를 할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Yoon & Lee, 2012). 또한 청소년의 음주행위는 다른 중독 물질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높이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Yoon & Cho, 2011), 비음주 청소년들에 비해 음주 청소년들은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공포불안, 자살생각, 대인관계 어려움 등의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Chun, 2008; Yoon & Cho, 2011). 음주는 청소년의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Bagge & Sher, 2008; McManama et al., 2014). 즉 청소년의 음주 경험은 자살생각에 또 다른

원인이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줄이는 노력으로 건강증진행동,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다(Kang & Kim, 2009; Song et al., 2013). 규칙적인 운동, 바른 식생활과 같은 건강증진행동은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살생각과 우울, 문제음주, 건강증진행동과도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각각의 요인들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어느 요인을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인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건강을 증진시키는 신체활동 요인과 문제음주 요인, 우울인지 요인을 매개로 연구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가중치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살방지와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및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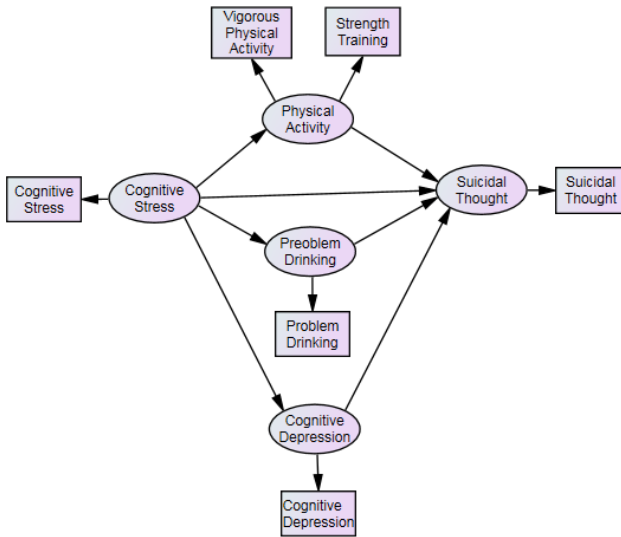
본 연구는 2013년 6-7월에 우리나라 전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제공받아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분석한 2차 분석연구로 횡단면적 조사연구(cross-section study)이다.

앞선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우울과 음주는 청소년 자살생각의 원인이고(Lee, 2008, Wang et al., 2007, Yoon & Cho, 2011), 건강증진행동을 향상 시키는 것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Kang & Kim, 2009; Song et al., 2013).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제안연구모형을 [Figure.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인지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스트레스인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때 신체활동, 문제음주, 우울인지가 매개요인일 것이다. 셋째, 연구가설 전체 경로에서 요인들 간의 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하였다.



[Figure 1] The research model

2. 자료

2013년도 제9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표본 추출과정은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모집단 층화 단계에서는 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43개 지역군과 학교급(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을 층화 변수로 사용하여 모집단을 129개 층으로 나누었다. 43개 지역군은 16개 시 도내의 시 군 구를 대도시, 중소도시와 군지역으로 분류하였다. 표본배분 단계에서는 표본크기를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로 한 후, 16개 시도별로 중고등학교 각각 5개씩 우선 배분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 집락추출법이 사용되었으며, 1차 추출단위는 학교, 2차 추출단위는 학급으로 하였다. 모집단의 학교수는 5,541개교, 학생수는 3,672,574명이었으며, 표본의 학교수는 799개교, 학생수는 72,435명이었다.

3. 변수의 정의

2013년 제9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조사내용은 흡연, 음주, 비만 및 체중조절, 신체활동, 식습관, 손상예방,

성형태, 정신보건, 인터넷중독, 구강보건, 아토피천식, 개인위생, 약물, 건강형평성 등 15개영역, 총 102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정의를 참고로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인지, 신체활동, 문제음주, 우울인지, 자살생각을 분석하였다. 일반특성으로는 성별, 학교구별을 분류하였다. 스트레스인지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1문항으로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 조금 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Likert 5점 척도로 분류되었다. 신체활동은 격렬한 신체활동, 근력강화, 걷기를 조사하였는데, 격렬한 신체활동은 최근7일 동안 숨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 근력강화는 최근7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역기 들기, 아령, 철봉, 평행봉과 같은 근육 힘을 키우는 운동을 한 날로 분류하였다. 문제음주는 현재 음주자 중에서 최근 12개월 동안 음주 후 문제행동(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또는 어울리기 위해 술을 마신 경험, 혼자서 술을 마신 경험,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술을 줄이라는 충고를 들은 경험,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은 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자동차에 탑승한 경험,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긴 경험,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인 경험)의 6문항을 사용하였다. 우울인지는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던 청소년으로 분류하였다. 자살의도는 자살생각, 자살계획과 자살시도를 분류하였는데, ‘자살생각은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음’, ‘자살계획은 최근 12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자살계획을 세운 적이 있음’, ‘자살시도는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이중 자살계획과 자살시도는 왜도와 첨도의 수치가 다변량 정규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21과 AMOS 21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로 이용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의 표본설계 특성에 따라 복합표본으로 분석하였다. 복합표본의 요소로는 계획변수에서 층화변수, 집락변수, 가중치를 추정방법에서 등확률

을, 크기지정에는 유한모집단수정계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결측자료와 비정규성은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의 검증은 왜도가 절대값 3미만, 첨도가 절대값 10미만일 경우를 채택하였다. 연구모형의 인증(Model Identification)은 표준합치도 지수(Normed Fit Index: NFI), 상대적합 지수(Tucker Lewis Index: TLI),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 원소간근접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등의 지수를 사용하였다. NFI, TLI, CFI는 .90이상, RMSEA는 .05미만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된다(Song & Kim: 2012).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는 남학생은 50.6%, 여학생은 49.4%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50.4% 고등학교는 49.6%로 나타났고, 성적상위권은 11.0%, 중위권은 76.4%, 하위권은 12.7%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상위계층 7.2%, 중산층 88.1%, 하위계층 4.7%로 나타났고, 부모동거여부는 양부모와 함께 동거가 85.4%, 편부모와 함께 동거가 10.5%, 부모와 동거하지 않음이 4.0%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	%
Gender		
male	36,655	50.6
female	35,780	49.4
School		
middle school	36,530	50.4
high school	35,905	49.6
Academic achievement		
high	7,942	11.0
middle	55,308	76.4
low	9,185	12.7
Family economic level		
high	5,222	7.2
middle	63,825	88.1
low	3,388	4.7
Living with parents		
two-parents	57,847	85.4
single-parents	7,123	10.5
parentless	2,721	4.0

2. 스트레스인지, 신체활동, 문제음주, 우울인지와 자살생각의 상관관계

스트레스인지, 신체활동, 문제음주, 우울인지와 자살생각과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스트레스인지는 신체활동, 문제음주, 우울인지, 자살생각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고, 자살생각은 스트레스인지, 문제음주, 우울인지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1)	(2)	(3)	(4)	(5)	(6)
Cognitive stress(1)	1					
Vigorous physical activity(2)	-.101**	1				
Strength training(3)	-.082**	.489**	1			
Problem Drinking(4)	.124**	-.005	-.063**	1		
Cognitive Depression(5)	.373**	-.012**	-.003	.187**	1	
Suicidal Thought (6)	.336**	-.007	-.001	.147**	.443**	1

Note: **p<.01

3. 구조모형 분석

1) 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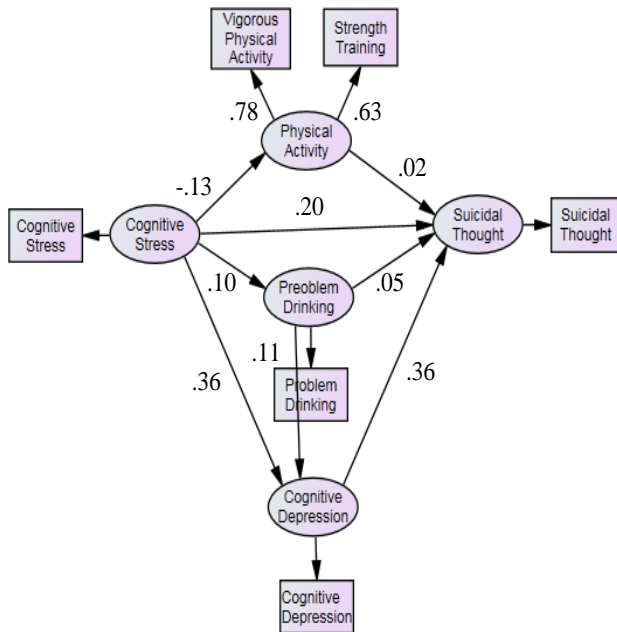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제안모형을 구성하였고, 제안모형 적합도를 바탕으로 모형의 수정과 채택을 결정하게 되며, 본 연구의 제안모형의 검증과 수정모형의 검증은 <Table 3>과 같다. 또한 수정모형은 [Figure 2]와 같다.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는 χ^2 와 df, RMSEA를 사용하였고, 증분적합지수는 NFI, TLI, CFI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제안모형 모형적합도 지수는 $\chi^2=1618.496$, $df=6$, $RMSEA=.061$, $NFI=.969$, $TLI=.924$, $CFI=.970$ 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의 문제음주에서 우울인지로 인과 경로가 추가된 수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684.568$, $df=5$, $RMSEA=.043$, $NFI=.987$, $TLI=.961$, $CFI=.987$ 로 나타나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제안모형의 적합도 지수보다 양호하여 수정모형을 채택하였다<Table 3>. 구조 방정식에서 χ^2 의 값이 유의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모형이지만, 표본의 크기가 적정한 경우에만 올바른 값을 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정모형에서 NFI, TLI, CFI의 값이 모두 .9 이상이고, RMSEA의 값은 .05이하이므로 모형이 양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Woo, 2012).

<Table 3> Research model and modified model fit

	χ^2	df	p-value	NFI	TLI	CFI	RMSEA
Research model	1618.496	6	.000	.969	.924	.970	.061
Modified model	684,568	5	.000	.987	.961	.987	.043

Note: NFI= Normed Fit Index, TLI= Tucker 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Figure 2] Modified model and standardized coefficients

2) 경로계수 분석

수정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경로계수에 대한 추정계수와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itical Ration값은 <Table 4>와 같다. 스트레스인지요인이 신체활동요인, 문제음주요인, 우울인지요인, 자살생각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스트레스인지는 신체활동($\beta=-.130$, $p<.001$)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음주($\beta=.096$, $p<.001$), 우울인지($\beta=.363$, $p<.001$), 자살생각($\beta=.198$, $p<.001$)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를 인지한 청소년은 신체활동을 적게 하게 되고, 문제음주, 우울인지,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체활동을 적게 하는 것은 자살생각($\beta=.019$,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는 자살생각($\beta=.048$, $p<.001$), 우울인지($\beta=.106$,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정모형에서 추가된 문제음주는 우울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나타났다. 우울인지는 자살생각($\beta=.363$,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Path estimates of the variables

Path	B	β	SE	C.R.
physical activity ← Cognitive stress	-.177***	-.124	.006	-27.380
Problem Drinking ← Cognitive stress	.082***	.096	.003	25.840
Cognitive Depression ← Cognitive stress	.175***	.363	.002	105.442
Suicidal Thought ← Cognitive stress	.077***	.198	.001	55.826
Suicide Thought ← physical activity	.005***	.019	.001	4.771
Suicide Thought ← Problem Drinking	.022***	.048	.001	14.688
Cognitive Depression ← Problem Drinking	.059***	.106	.002	30.659
Suicidal Thought ← Cognitive Depression	.293***	.363	.003	102.919

Note: ***p<.001, C.R.= Critical Ratio

3)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분석

변수들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분석은 <Table 5>와 같다. 간접효과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법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경로계수간 차이검증은 자유모델과 제약모델간 $\Delta\chi^2$ 을 통해 검증하였고,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인지($\beta = .363, p < .0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beta = .198, p < .001$), 문제음주($\beta = .048, p < .001$)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살생각에 스트레스인지가 우울인지를 매개로한 간접효과($\beta = .131, p < .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문제음주를 매개로한 간접효과($\beta = .0046, p < .01$) 순으로 나타났다. 비록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우울인지에 스트레스인지에서 우울인지로의 직접적

인 효과($\beta = .363, p < .001$)보다는 스트레스인지에서 문제음주를 통한 우울인지로의 간접효과($\beta = .010, p < .01$)가 작지만, 문제음주가 우울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인지가 우울인지에 문제음주가 개입되기 전 경로계수 $\beta = .373, CR = 108.170, p < .001$ 이었고, 문제음주가 개입된 후 경로계수 $\beta = .363, CR = 105.442, p < .001$ 로 약해졌지만, 통계적으로 여전히 유의하기 때문에 부분 매개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스트레스인지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신체활동, 문제음주, 우울인지를 매개효과로 갖는 것이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래핑법으로 검증되었고, 매개효과 중 우울인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음주는 우울인지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자살생각에 또 다른 매개효과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otal effects and effect decomposition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physical activity	← Cognitive stress	-.130***	-.130***	
Problem Drinking	← Cognitive stress	.096***	.096***	
Cognitive Depression	← Cognitive stress	.373***	.363***	.010**
	← Problem Drinking	.106***	.106***	
Suicide Intent	← Cognitive stress	.336***	.198***	.138**
	← physical activity	.019***	.019***	
	← Problem Drinking	.087***	.048***	.038**
	← Cognitive Depression	.363***	.363***	

Note: **p<.01 ***p<.001

IV.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인지, 신체활동, 문제음주, 우울인지, 자살생각의 차이와 청소년의 스트레스인지가 신체활동, 문제음주, 우울인지를 매개 변인으로 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 자살 감소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3년 제9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의 72,4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트레스인지, 우울인지, 자살생각은 성별, 학교구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 스트레스인지는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반면, 자살생각은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청소년의 스트레스인지 중 학업 스트레스와 진학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남학생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더 인지한다는 선행연구(Shin & Yu, 2014; Hyun et al., 201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배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Wang et al. (2007)의 연구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자살생각에서 스트레스 인지가 높은 남학생보다 우울인지가 높은 여학생이 높게 나온 것은 스트레스 보다는 우울인지가 자살생각에 영향력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학교구별은 스트레스인지와 자살생각은 중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 세대의 중2병을 대변하는 결과로, 스트레스인지와 자살생각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본 연구가 72,000건 이상의 표본으로 조사되어 인구학적 특성별 차이 조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일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성별과 스트레스인지, 우울인지의 유의한 차이를 지지하는 결과와 스트레스인지보다 우울인지가 자살생각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로 의의가 있다.

둘째, 스트레스인지, 신체활동, 문제음주, 우울인지와 자살생각과의 경로에서 자살생각에 가장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인지로 나타났고, 스트레스인지, 문제음주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에서 예측된 결과인 스트레스인지보다 우울인지가 자살생각에 높은 영향력이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이고, 선

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여러 요인들 중 우울인지가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Kim, 2012). 본 연구의 수정모델에서 나타난 우울인지에 인과관계를 갖는 스트레스인지와 청소년의 문제음주의 적극적인 대처가 청소년 자살생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청소년의 우울인지의 원인이 되는 요인의 집중 관리의 자살 방지에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스트레스인지는 신체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신체활동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활발한 신체활동은 자살생각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Song et al, 2013). 이는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현재의 성취중심의 학업 분위기로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인지를 높이기 보다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스포츠 활동이나 체계적인 체육수업을 통하여 스트레스인지를 감소시켜, 자살생각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스트레스인지를 한 청소년은 문제음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우울인지로 이어지고,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가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이는 문제음주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우울인지에 영향을 미쳐 자살생각에 이르게 만드는 요인이다. 사회제도적으로 청소년의 음주를 제재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직·간접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주류구매의 용이성은 77.4%로 매우 높다. 청소년이 최근 30일 동안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주류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77.4%가 쉽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1조에 의거하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즉 확 인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음주가 판매되는 것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으로 이어지고, 청소년 자살의 원인인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 자살생각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사회적 제도의 적극적인 대처로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접근성이 좋은 여가 및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청소년의 문제음주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환경 조성에 대한 접근의 중요함이 밝혀졌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에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인지가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우울인지에 학교, 가정, 사회가 공동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청소년 우울에는 학업스트레스, 이성관계 등의 개인적 원인과 청소년 음주 등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고, 집단상담을 통한 접근방법(Kang, 2009), 청소년 건강평가의 개입방법(Park, 2013)등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집중적인 관리와 관심을 기대한다.

둘째, 스트레스인자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줄어들고,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성적 성취를 위하여 체육시간을 줄인다거나 체육시간에 교과위주의 수업을 하는 비정상적인 수업 운영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높일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적극적인 체육활동으로,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을 기대한다.

셋째, 청소년의 스트레스인자로 인한 문제음주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울인지에도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강력한 사회제도로 청소년의 음주접근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에게 음주를 제공한 자에게는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고, 주류의 가격·세금정책에 있어 주세에 주류 소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 간접비용을 적용시켜, 자연스럽게 비음주자에게 전가되는 불평등 비용을 줄이고(Kim et al., 2013), 주류 가격상승을 유도하여 청소년의 주류 접근을 어렵게 만들기를 기대한다. 이는 국가가 청소년 뿐 아니라 국민에게 주류에 대한 접근을 경제적인 측면 보다 보건학적 측면으로 하여 자살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통한 패널자료 분석으로 자살생각에 대한 심도 깊은 설문 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청소년 우울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측정과 문제음주에 대한 다양한 행위 즉 음주를 누구와 하는 지, 누구에게 음주를 배웠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우울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는 점과 음주행위 제한이 청소년 자살로 이어지는 청소년 자살생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데 의의를 둔다. 그리고 가정, 학교, 사회, 국가등의 공동체 차원에서 제도적 대응이 청소년 자살 방지, 더 나아가 청소년의 인간 존엄성에 접근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향후 청소년 자살의 중요한 인과관계를 갖는 우울인지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References

- Bagge, C. L., & Sher, K. J. (2008). Adolescent alcohol involvement and suicide attempts: toward the development of a conceptual framework. *Clin Psychol Rev*, 28(8), pp.1283-1296.
- Barrios, L. C., Everett, S. A., Simon, T. R., Brener, N. D.(2010). Suicide ideation among US college students associations with other injury risk behavior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8(5), pp.229-233.
- Choi, Y. J. (2012). Effects of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who report a history of childhood abus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2), 307-333.
- Dubow, E. F., Blum, M. C., Reed, J., & Bush, E. (1989).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community sample of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pp.158-166.
- Harwood, D., & Jacoby, R. (2000). *Suicidal behavior among the elderly*. John Wiley & Sons. Ltd.
- Hyun, M. K., Woo, J. M., Kim, J. M., Choi, S. M., Kang, E. H., Kim, K. M. et al. (2012). Adolescent suicide risk on its regional research.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Report*, pp.1-126.
- Chun, J. S. (2008). A study of dual diagnosis of substance dependence and mental disorders among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5(6), 251-270.
- Kang, D. S., Kim, W. J. (2009). Effects of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 based on reality therapy on the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of adolescents,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19, 79-102.

- Kevin, A. Y., Dan, R. H.(2005). Family economic pressure and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pplicat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Suicidal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5(3), 251-264.
- Kim, D. I., (199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behavior and juvenile delinquenc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tudies Series*. 9-98.
- Kim, G. S., Jeon, Y. S., (2012). The effects of depression, anxiety, and impulsiveness on suicidal thoughts among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1(5), 903-913.
- Kim, H. T., Yoon, M. E., Kim, M. K., Chun, S. S. (2013). Alcohol policy support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life satisfaction, and problem drinking.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3), 086-103.
- Kim, J. K., Kim, G. H. (2013). Factors affecting drinking and drinking frequency among Korean youth.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2), 317-346.
- Kim, M. R.,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ego-state, stroke and schoo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based on the theory of transactional analysi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20(2), 183-200.
- Lee, C. H. (2013). The cause of police officer's suicide ideation in south Korea. *Korea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53, pp.193-216.
- Lee, Y. J. (2008). The effects of suicidal risk factors on suicidal behavior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go resilienc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2), 659-673.
- McManama O'Brien, K. H., Becker, S. J., Spirito, A., Simon, V., & Prinstein, M. J. (2014). Differentiating adolescent suicide attempters from ideators: examining the interaction between depression severity and alcohol use. *Suicide Life Threat Behav*, 44(1), pp.23-33.
- Meaghen, Q. D., Antonio, S., Isabel, E., Joseantonio, E. C., Matilde, M. (2014). Suicide among young people in the America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4, pp.262-268.
- Moon, D. K., Kim, Y. H. (2011). A meta-regression analysis on related triggering variables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9(1). 59-83.
- Moscicki, E. K.(1997). Identification of suicide risk factors using epidemiologic studies.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0(3), pp.499-517.
- Nam, Y. O. (2013). The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11), 283-304.
- Oh, S. H., Lee, C. H. (2010). A study on discriminant factors of juvenile suicide impulse. *Korea Association of Criminal psychology*, 6(2), 147-170.
- Park, D. H., Jang, S. R. (2013). Influence of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on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667-2676.
- Shin, H. J., Yu, K. R. (2014). Connectedness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burnout.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1(1), 367-393.
- Son, A. R. (2010). The effects of stress and depression on problem drinking. *Health and Social Science*, 27, 61-79.
- Song, I. H., Kwon, S. W., Kim, H. J. (2013). The effect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on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9), 97-123.
- Song, T. M., Kim, G. S. (2012). Structure equation modeling for health & welfare research. Seoul. Hannarae.
- Statistics Korea (2012). 2012 Cause of death statistics.
- Woo, J. P. (2012). The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Hannarae.
- Ye, E. K. (2012). Study of theory and research on youth suicide. *The Study of Child-Family therapy*, 11, 1-16.
- Yoon, M. S., Cho, H. J. (2011). A longitudinal effects analysis of adolescent drinking on the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3), 43-66.
- Yoon, M. S., , Lee, H. S.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job preparing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problem drinking.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9(3), 109-137.